



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·관협의회 개최

-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각 기관별 주요추진사업 공유 -

-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(관장 최두섭)은 7월 23일 오전 11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『2020년 제1차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』를 개최했다.
-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독립운동 91주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,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광주정신역사탐방프로그램 운영, 학생독립운동 역사아카데미,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직무연수 운영 및 광주지역 독립·호국·민주 역사 웹툰 및 웹드라마 교육자료 활용 등에 대해서도 사업정보를 공유하였다.
- 또한 내실 있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「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규정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 세부 내용은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회의 개최, 심의·결정 방법, 참여기관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.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안전 결과를 관련기관·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관련기관의 검토 후 정책 반영 및 예산 반영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-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회는 『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』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,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, 광주시청 및 시의회, 광주시교육청, 광주보훈청 등 공공부문 6개 기관과 (사)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 학생독립운동 관련 민간부문 4개 단체가 참여하여, 학생독립운동 관련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신규

추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의 의견 수렴 등 긴밀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.

- 이날 진행을 맡은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“각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·공유하여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.” 라며 민관협의회위원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.